

호남선 KTX 개통...광주시·김동철 의원 등 '송정역 대책회의'

시내버스 5개 노선 신설 공영주차장 100면 증설

2015 문화전당 연계 아트 투어 남행열차·시티버스 운행 불법 주정차 금지 CCTV 추가 설치·대합실 확충 등

광주 송정역이 호남선 KTX 개통 한 달도 안돼 비좁은 역사의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 29일자 1·3면)과 관련해 광주시와 정지권,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원장(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송정역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대책회의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광산구, 광산경찰서, 코레일 광주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의 간부급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 이용객의 연계 환승 및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전남 서부권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송정역세권 개발을 위한 송정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도산 7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역 주변 공·폐가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코레일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한 아트 투어 '남행열차', 광주 '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송정역 정문 건너편은 각종 공·폐가 등이 방치돼 광주의 첫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최근 개선사업은 뒷전인 채 임시 가림막인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려 해 광산구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부족한 주차장도 일부 확충된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송정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주 송정역 뒤편에 주차면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막는 CCTV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또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광주송정역세권 재생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이 여전한 자치구가 불과 한달여전에 새롭게 문을 연 KTX역의 부족한 주차장까지 조성해야 하는지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이나 협소한 대합실 등 시설 부분은 이용객의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해 규모를 축소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송정역사를 설계·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서두르고, 이미 철거한 호남고속철 홍보관 공간을 대합실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기로 했다.

철도운영을 실제 담당하는 코레일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인정산기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급모타이어 공장 쪽 공터를 활용한 제2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안내표지판 보완, 화장실 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대합실 편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코레일은 특히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KTX 편성 변경을 통한 좌석 확대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출퇴근 시간 및 KTX 도착·출발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송정역 주변 교통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철 산업위 원장은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와 협의·개선해 송정역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심장혈관 스텐트' 美 특허 등록

정명호·조동련 교수팀 세계 최초 임상 반응 최소화

전남대학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임상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티탄 산화물 코팅 심장혈관 스텐트'가 미국 특허등록을 획득했다.

심장혈관 스텐트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의료기기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스텐트 제조 상용화시 심장병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는 17일 대학 부설 '한국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의 정명호(의과대 순환기내과학교실)·조동련(공과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팀이 개발한 '티탄산화물 코팅을 이용한 약물방출 심장혈관 스텐트 제조법'이 지난 4월7일자로 미국 특허등

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지난 2011년 국내 특허등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미국 특허등록을 획득한 새로운 '티탄산화물 코팅 심장혈관 스텐트'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제로도 선정돼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과제 수행에는 전남대병원이 개발해 특허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제조 허가를 받은 '심혈관계 스텐트(CNUH stent)'가 이용되고 있다.

정명호·조동련 교수팀은 'CNUH stent'의 효과가 외국산 스텐트보다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 관련 논문을 2014년 11월 일본심장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정명호 교수는 "이 기술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용



정명호 교수 조동련 교수



약물방출 심장혈관 스텐트

출 스텐트와 비슷한 신생내막 억제효과를 보이면서도 폴리머(중합체)를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부착시킴으로써 임상반응을 최소화해, 스텐트 혈전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진도 서망항에 '세월호 인양 사무소' 지난 15일 진도 서망항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마련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사무소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족한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와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한다.

/연합뉴스

이낙연 지사, 정부에 2단계 예산 지원 요청

상반기 착공·2020년 완공

이낙연 전남지사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노선의 조속한 확정과 상반기 착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17일 "지난 15일 이 지사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당면 현안 및 2016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해결과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최근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 송정)에 이어 2단계의 2020년 완공을 위해 노선 확정과 상반기 중 착공을 건의했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해운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대학·연구소의 조기 입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지역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비 지원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건설,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내년도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6년도 부처별 예산안이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원 면담, 부처 접촉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이 부처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15 공동행사 빨간불...U대회로 불똥?

남·북, 성격·장소 놓고 이견...북 응원단 참가 등 악영향 우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6·15·8·15 공동 기념행사가 남북 간 이견으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 U대회 흥행카드로 꼽히는 판문점 성화봉송, 북 응원단 참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회호 여사의 방북도 북한이 센터측의 사전접촉 요청에 호응하지 않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6·15는 서울, 8·15는 평양으로 행사 개최 장소를 합의했

다"면서 "남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 모두 서울에서 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양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6·15 서울 개최 합의는 변함없이 유효하지만, 광복 70돌(8·15) 공동행사는 남북이 합의한 바 없다"며 평양으로 8·15 개최 장소를 합의했다는 북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檢, 대선자금·특사의혹 수사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지난 15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을 파견해 서산장학재단에 있는 성 전 회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학금 모금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비롯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 전 회장의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문의동 광안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